

동양 제일의 명의, 허준

정찬주 <소설가>



서자의 한을 풀다.

허준(許浚)의 호는 구암, 자는 청원(淸源),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명종 원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양천 허씨는 명문 집안이었다. 허준의 할아버지 허곤은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우수사를 지냈으며, 아버지도 무과에 등과하여 용천 부사를 지냈다.

그런데 어머니 손씨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허준은 태어나면서부터 서자의 굴레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적자와 서자의 차별제도가 엄격

하게 적용되고 있던 시대였으므로 허준은 한을 품고 살아야 했다.

서자는 중인밖에 될 수 없으며, 과거를 보아도 잠과밖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허준은 때로 거친 행동을 보여 식구들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손자를 아낀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재주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 영특한 아이야. 적자로만 태어났으면 과거 장원 급제감이지.”

할아버지 허곤은 적자와 서자의 차별제도를 원망하곤 하였다. 그

러나 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허곤은 손자에게 의술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경상도 산청 지방에 기인으로 소문난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유의태라는 기인이었다. 할아버지 허곤은 유의태를 찾아가 앞뒤 사정을 늘어놓았다.

“비범한 재주가 아까워서 의술을 가르치려 하오니 꼭 청을 들어주소.”

그러자 유의태는 허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의학과 상관 없는 한학의 소양을 묻는 질문들이었다.

허준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또렷또렷 대답했다. 손자 자랑을 했던 허곤은 길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허준이 어른스런 태도를 보이면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의태도 내심으로는 놀라고 있었다.

“보기와 달리 똑똑하군.”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의술을 물려 주어야 할 제자를 찾고 있던 터였었다. 유의태는 그 자리에서 허곤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 좋습니다. 제가 맡아서 의술을 가르치지요.”

이때부터 허준은 유의태를 스승으로 삼아 의술을 공부했다. 의술 뿐만 아니라 스승의 학덕까지도 조금씩 받아들였다.

임금의 총애를 받은 명의

마침내 허준은 선조 7년이 되어 의과에 합격했다. 그리하여 그 다음 해에는 내의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의술은 궁중 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때, 허준의 나이 30세였다. 이제는 임금까지도 그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다. 1592년에 임진왜란 때에는 선조의 어의가 되어 피난길에 오른 임금을 혼신의 힘으로 받들기도 하였다.

후일 이 같은 충성을 인정받아 호성공신이 되었고, 양평군으로 봉해졌다. 그리고 승록대부에 올랐으나 중언에게는 당상관의 벼슬을 줄 수 없다고 사간원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당상관이 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그래도 선조는 허준을 믿었다. 그래서 '동의보감'편찬의 중책을 맡긴 것이었다.

그러나 허준은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했다. '동의보감'이 아직 반도 완성되지 못했는데 선조가 승하하시고 만 것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불똥이 튀었다. 허준은 일시 파직을 당하고 귀양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죄목은 치료를 소홀히 하고 약을 잘못 썼기 때문에 선조가 승하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어. 이 일은 백성을 위하는 일이야.”

허준은 좌절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계속해서 '동의보감'편찬에 온 힘을 쏟았다.

2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날 무렵, 허준은 마침내 '동의보감' 25권을 마무리 지었다. 광해군 2년, 1610년의 일이었다.

허준의 박애 정신

'동의보감'은 허준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을 것

이었다.

그에게는 25권이란 방대한 저술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었다. 허준의 저술 능력은 선조 14년 '찬도맥결'의 교정과 개편을 하면서부터 키워졌다.

고양생이 지은 '찬도맥결'은 의과고시의 교재로 채택되고 있던 의서인데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어 후학들이 의술을 익히는 데 불편이 많은 책이었다.

그러나 허준이 재편찬한 뒤로는 조선말까지 진맥에 관한 지식은 모두 '찬도맥결'을 인용하였다.

더불어 허준은 임원준의 '창진집', 노중례의 '태산요록'을 증보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편찬 작업의 공적보다도 더 뛰어난 허준의 면모는 그의 박애정신에 있지 않을까.

허준은 왕실과 양반 중심으로 쓰여진 의서들을 가난한 백성들도 알아 볼 수 있게끔 한글판 의서들로 편찬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한글로 쓰여진 의학서였다. 그런데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허준의 이러한 박애정신을 질투하였다.

임금에게 한글판 의학서의 간행을 중지하도록 상소를 올렸다.

“한글판 보급은 의학을 오도하여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허준에 의해서 한글판으로 간행된 의서들은 부인과 의서인 '태산집요', '언해구급방', 천연두와 발진성 전염병 의서인 '창진집요' 등 이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들이었다.

동의보감의 독창성

'동의보감'의 특색은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 중국의 의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여러 의학서들을 참고하여 정리한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은 당시의 약재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던 처지였는데, 허준은 약재의 국산화에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동의보감'에 감초, 마황, 영릉향, 안식향 등에 대한 재배시험과 대용 약재를 개발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동의보감'의 완성은 우리 한의학자의 자존심을 세워 준 불멸의 업적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나라에도 좋은 향약(鄉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고 있으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 정리한다.
- 온갖 병은 섭생에 원인이 있으므로 수양을 먼저하고 병행해서 약을 처방토록 한다.

또한, '동의보감'은 중국의 본초서와 달리 약재의 이름 아래 기원, 약효, 산지(產地)등을 밝히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그리고 '탕액본초'에 실려 있는 402종의 약재 기록 중에 90종의 약재에 대해서 허준이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고, 인용 출처를 속방(俗方)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독특한 내용이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은 당시의 약재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던 처지였는데, 허준은 약재의 국산화에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동의보감'에 감초, 마황, 영릉향, 안식향 등에 대한 재배시험과 대용 약재를 개발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동의보감'의 완성은 우리 한의학자의 자존심을 세워 준 불멸의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의학사를 연구한 일본 학자 미끼사카에도 허준을 '고금 제일의 명의를며 편창(扁倉)에 비할 수 있는 탁월한 실증의학자'였다고 그의 저서 속에서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편창이란 중국 최고의 명의로라고 하는 편작과 창공을 말하는데, 그들에 비할 수 있다고 허준을 추켜세워 준 것이다.

일본 학자가 자신의 나라 사람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는 허준의 저서인 '동의보감'을 '허준의 이름을 불멸케 한 한반도 최상의 의학 서적으로서 존중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전해져서 한국 의학을 세계에 선양한 책'이라고 찬양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동의보감'은 일본은 물론 중공에까지 지금도 번역판이 발간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요즈음은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까지도 '동의보감'이 소개되고 있다하니 놀라움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